



# 포장업계 유통질서 확립 위해 선도적 역할

## BOPP 필름 산업용시장 영역확대에 주력

최무상 / 울촌화학(주) 마케팅관리실 실장

“**포**장업계의 권위있는 한용교포장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이 받은 상이 아닌, 울촌화학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대신 수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영업부문 수상자인 울촌화학(주) 최무상 마케팅관리실 실장은 “포장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울촌화학 가족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무상 실장은 (주)농심에서 식품영업을 시작으로, 지난 91년 울촌화학(주)에 입사, BOPP Film 영업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마케팅관리실 실장으로 필름 외 연포장, 이형지, CPP 튜브, CT 등 사업 아이템별 영업을 책임지고 있다.

울촌화학(주)에 입사한 이후, BOPP Film

의 신수요 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식품, 생활용품 포장재 원단에서 산업용 소재로서 용도를 확대시키는데 주력해 온 최무상 실장. 그는 업종 간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덤핑판매 예방에 공헌하는 등 업계 내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현재 BOPP Film은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 필름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이다. 또한 기존 수요에서 살펴볼 때 한계에 봉착한 것이 현실.

최 실장은 “수입필름에 맞서 국내 OPP Film 내수 시장과 업계를 지켜야 하고,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BOPP Film의 산업용 원단 영업을 맡았을 당시에는 BOPP Film의 판매 확대에 영업 초점이 있었지만 현재 BOPP Film의 새로운 용



▲ 최무상 실장이 김선창 포장협회 회장과 한용교 명예회장으로 부터 상패를 전달받고 있다

도, 즉 또 다른 수요를 개척하고 확장하는데 더 큰 목표를 두고 업무에 매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무상 실장은 현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포장소재 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고객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영업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한 영업, 고객과의 진솔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최 실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영업에 임한다면, 단기적

으로는 그 성과가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객과 강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보완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포장업계의 난항을 바라보며, 업계가 서로 고통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무상 실장. 그는 “과잉 경쟁에 따른 건전한 유통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그 어

느 때 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면서 “BOPP Film은 물론 포장업계 모두 진솔한 자세로 경영하고, 영업하여, 유통질서를 지켜 나가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또한 그는 한국포장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 전 포장업계가 고루 발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최무상 실장. 정직한 영업을 통해 업종 내 부당경쟁과 불공정 거래의 사전예방에 기여해 온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